

G-Telp 독해 Introduction

<구성>

문항 수: 28개 [각 파트 당 7문제]

지문구성: 4개 파트

소요시간: 약 40분

Part 1. Biographical Narrative [인물의 일대기]

Part 2. Magazine, Newspaper or Web article [실험, 가설 혹은 새로운 발견]

Part 3. Encyclopedia Article [백과사전적 지식]

Part 4. Business or Formal Letter [마케팅이나 사업제안 등의 서신/E-mail]

다른 영어시험도 마찬가지지만 G-telp 독해 역시 결국 시간싸움이다. 주어진 시간 동안 신속하게 글의 내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는 것이 독해 풀이의 핵심이므로, 문제 풀이 시간을 직접 체크하며 시간관리 능력을 키운다. 믿을만한 데이터에 의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 1분에 150개 단어의 시속 확장은 충분히 가능하다하니, 평소에 빠르게 읽고 빠르게 이해하는(속독속해) 능력을 배양한다. 아울러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문맥으로 대처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G-telp 독해를 잘하는 법

1) 풍부한 어휘력을 구축한다.

: 기본적인 어휘력조차 뒷받침 되어 있지 않다면, 흰 것은 종이이고 까만 것은 글씨에 불과할 것이니 **해석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지텔프 독해 풀이의 핵심인 **유사어구 반복**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요원하다. 독해의 첫 번째 선결조건은 풍부한 어휘력이다.

2) 유사어구 반복에 주목한다.

: 영미(英美)권 사람들은 **동일한 형태의 어구를 똑같이 반복 사용하는 것을 식자(識者)의 수치**라고 생각할 만큼 심하게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나타내는 의미가 같은 경우, **'단어'뿐 아니라 '구나 절, 문장' 또한 그 형태를 바꾸어 같은 의미를 다시 표현 (Paraphrasing)하는 유사어구 반복**에 각별히 주의한다.

Ex.] 실제 독해 시험에 나왔던 유사어구들

Arabia (아라비아)-> the Moslem nations(이슬람 국가들)

Antarctica (남극)-> this fragile and important part of the planet(지구의 이 연약하고 중요한 부분)

each term(매 학기) -> per semester(매 학기)

trade-off (맞바꿈) -> exchange(교환)

inscribed on papyrus (파피루스에 새겨진)-> written on papyrus (파피루스에 쓰여진)

if caught (붙잡힌다면)-> when exposed(적발된다면)

seek (추구하다)→ is after

the North ([북반구의] 선진국)→the industrialized countries → rich countries

the South ([남반구의] 발전도상국)→ in the other half of the world → poor countries

유사어구 파악 Practice

Coffee was introduced much later to countries beyond Arabia whose inhabitants believed it to be a delicacy and guarded its secret as if they were top secret military plans. Transportation of the plant out of the Moslem nations was forbidden by the government. The actual spread of coffee was started illegally. One Arab named Baba Budan smuggled beans to some mountains near Mysore, India and started a farm there. Early in this century the descendants of those original plants were found still growing fruitfully in the region.

3)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 문장의 핵인 『동사』, 주어, 목적어, 보어 즉 문장성분의 축이 되는 『명사』, 그리고 그 명사를 한정하고 풀어주는 『형용사』,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미를 곁들이는 『부사』의 역할을 **단어체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와 절의 덩어리 형태로서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접속사나 관계사 등의 연결어를 충분히 학습하여 **내용과 내용의 연결 관계에 익숙해진다.** 또한 『독해 필수 구문』을 공고히 학습하여 **문장 해석능력을 극대화** 시킨다.

4) 글 전체 구조를 먼저 보는 거시적인 독해를 하라.

: 글의 의미 전개를 『단어에서 구, 절, 문장, 문단, 전체지문』의 순서로 파악해가면 독해는 천리만리 끝없는 방랑의 길이 되기 쉽다. 독해는 **항상 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여 『(전체)글 - 문단 - 문장 - 단어』의 순서로 파악해** 나가야 한다. 즉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먼저 파악 한 후 이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부분으로 상세화** 시켜나갈 때, 글의 흐름뿐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알아두면 유용한 구체적인 G-telp 독해 기법]

1) 문장을 선개념으로 파악, 앞에서 뒤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 나간다. [직독 직해]

2) G-telp 독해는 문제 순서대로 지문의 내용이 전개된다.

: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다. ⇒ 선택지(보기항)를 읽는다. ⇒ 지문을 찾아 읽는다.

3) Part 1, Part 4는 Paraphrasing에 특히 유의한다.

4) Part 2, Part 3는 Main Idea를 활용해서 공략한다.

- Main Idea 찾는 요령

① 영어 지문의 70%이상이 첫 단락 첫 문장에 주제문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마지막 문장에 주제문을 많이 두고 있으므로 우선, 첫 문장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훑어 읽기에 들어간다. 첫 문장이 주제문(두괄식)인 경우 예시, 부연 등 보충 설명들이 이어지고 결론으로 마무리될 때가 많다.

특히 Part 2의 경우 제목 자체가 핵심 Keyword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제목만으로도 2, 3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Part 2의 경우 제목이 갖는 메시지에 특별히 주목한다.

② 사고 반전(反轉)의 역할을 하는 역접(逆接)의 연결사 뒷자리는 중요하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식과 통념이 먼저 제시되고 이후 역접의 연결사가 나온다면 바로 그 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들어간 주제문이다.

*주요 역접 접속사: **But, However, Yet, Still, Nevertheless, Nonetheless,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등

③ 역접의 경우보다는 덜 하지만 결과를 보여주는 연결사 뒷자리 또한 주제문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결과 연결사: **Thus, Therefore, So, Hence, As a result, As a consequence, Consequently** 등

④ 교수나 학자 등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에 객관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장치임을 알라.

G-telp 독해 유형 3가지

1. 일치, 불일치[언급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내용 찾기] 유형
2. 추론 유형
3. 단어 유형

1. 일치, 불일치[Fact 찾기] 유형

∞ 유형 분석

지텔프 독해 중 압도적으로 많은 유형이다.

지문의 세부 사항(특정 정보)을 파악하는 유형으로 지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이다. 글에서 제공된 정보와 선택지의 일치와 불일치 여부를 묻는 유형이므로 각각의 문장에 대해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글에서 제시한 특정 정보나 인물에 대해 묻는 문제와 지문 전반에 걸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 유형 등이 있다. 시간이 부족 할 시 fact를 묻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이후에 fact가 아닌 선택지를 풀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 해결 전략

① 선택지와 지문 비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사실들 그리고 비교적 지엽적인 세부사항들까지도 꼼꼼하게 읽고 정확하게 비교, 대조해야 한다. 이때는 반드시 지문에 진술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시간, 숫자, 고유명사 등에 각별히 주의한다. 또한 '오직, 결코, 항상, 모든, 단지 ~만' 등의 표현들이 있을 때에는 지문에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씻어 먹고 사는 원숭이가 있다.'라는 언급이 있을 때, '모든 원숭이는 고구마를 씻어 먹는다.'는 오답이다.

② 지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실 정보에 집중

지문 속에 언급된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답을 고른다. 평소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일반적인 상식, 사실 내용의 유추나 비약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단, 지문 속에 사실로 언급된 내용들이 선택지에는 '유사어구'나 '동의어구' 혹은 '재진술'형태로도 표현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③ 글의 중심 내용이 들어 있는 주제문이나 핵심 정보를 파악

주제문이나 핵심 정보를 찾는 것은 모든 유형의 독해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된다. 내용 일치 및 불일치 문제는 전체적인 숲 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봐야 하는 문제 유형으로 볼 수 있기에, 자칫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소홀할 수 있다. 그러나 글의 주제와 핵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면 내용 일치 및 불일치 유형의 문제해결에 꼭 필요한 글 전체의 전반적인 맥락과 전개과정을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는 것을 명심한다.

2. 추론[Inference] 유형

∞ 유형 분석

글 속에 있는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생략된 내용을 추측하며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추론적 이해 능력이다. 추론적 이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실적 이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글에서 주목할 만한 정보에 대한 가정이나 전제, 필자의 관점이나 태도를 파악하는 사고 역시 추론적 사고에 포함된다. 출제자는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정보를 근거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추리해 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에 **probably, possibly, most likely** 등이 들어가 있다.

∞ 유형 해결 전략

지문의 중심 생각과 연관을 지어가며 세부 내용을 읽도록 한다. 주제를 보충해주는 문장들 속에 제시되는 정보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글의 의미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문 속 특정 문장과 일치하는 선택지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글 어딘가에 선택지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주어지므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3) 단어[Word] 유형

∞ 유형 분석

지텔프 독해의 각 Part는 끝에 2 문제의 단어 문제를 두고 있다. 『**Q.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 consumed means _____.**』에서 알 수 있듯 밑줄 친 단어의 문맥 속 의미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 유형 해결 전략

출제자는 수험자가 밑줄 친 단어를 모른다는 가정 하에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므로, 해당 단어의 앞 뒤 문맥(전 후 두세 문장)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한다.